



버스 노선에서 '민주공원' 명칭 사라져……

지난 8월말 민주공원 방향의 시내버스 버스노선도에서 '민주공원'이 사라지고 '중앙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는 부산시가 일부 단체의 민원을 받아들여 명칭을 바꾸었고 향후 도로표지판의 표기도 바꿀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주공원'이라는 명칭은 개관 이후 10년 동안 버스와 도로표지판에 사용되어 왔고 각종 행사와 사업을 통해 매년 30~4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이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명칭이 변경되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부산민주공원은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조성한 공원으로서 지역사회 민주주의 역사 전반을 기념, 계승하는 공간으로서 전국에서 유일한 민주공원을 하나의 브랜드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지는 못할망정 명칭을 변경하고 지우려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10년 동안 사용해왔던 표지판을 바꾸면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식의 소통부재와 일방주의 행정의 문제를 점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산시에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다. 민주공원에서는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사과와 버스노선표와 도로표지판의 명칭 복원을 요구할 예정이다.



부마민주항쟁 30주년 및 민주공원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올해 부마민주항쟁 30주년과 민주공원 개관 10주년을 맞아 10월 한 달 동안 다양한 기념, 학술 행사가 열린다. 9일(금)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전국학술심포지엄을 시작으로 민주공원 개관 10년 전시, 풀뿌리 난장, 역사맛이 대동궁, 전국민족극 한마당, 부산사회포럼, 국제심포지엄 등 진행될 예정이다. 16일(금)에 열리는 부마민주항쟁 30년 및 민주공원 개관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제 18회 민주시민상 시상식과 함께 '부마항쟁30년, 한국사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임현영 선생(민족문제연구소 소장)등을 모시고 시대와의 대담이 이루어 질 예정이다. 16일(토)~17일(일)에는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난장과 부마항쟁을 주제로 다룬 연극 '시월연가' 공연, 전국민주가족 등반대회가 펼쳐지고 22일(목)부터 25일(일)까지는 전국민족극한마당-2009부산 공연이 열린다.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는 한반도 평화와 진보담론, 2010년 지방선거를 주제로 부산사회포럼이 열린다. 이번 30년 사업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하고 현재적 계승을 통해 시민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주아시아인권학교,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 육성에 앞장서

5·18기념재단은 지난 8월 31일(월)부터 9월 19일(토)까지 3주 동안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2009 광주아시아인권학교를 개최하였다. 아시아의 인권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14개국 20명의 활동가들이 참가하고 국내외 민주주의, 인권, 평화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하였다.

5·18민주화운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한 광주아시아인권학교는 지난 5년동안 108명의 활동가가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이들 참여자 중 일부가 선발되어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시민사회지도자 석사과정으로 연결되어 진행되고 있다. 인권학교는 아시아의 시민사회 지도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모범적인 프로그램으로 광주가 아시아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5 · 18기념재단(www.518.org)

제 8회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열려

5 · 18기념재단이 주최하는 제 8회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가 지난달 11일(금)부터 13일(일)까지 5 · 18자유공원, 5 · 18기념 문화관 등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고등학생 161개 팀이 2인 1조로 출전하여 예선을 통과한 30개 팀(60명)이 10개 모둠으로 나뉘어 토론을 벌였다.

이번 대회 주제는 '청소년, 2009 한국교육을 이야기하다'로 본선 1차 토론 주제는 '청소년에게 교육을 묻다', 2차 토론 주제는 '청소년, 한국교육을 진단하다'였다. 참가자들은 교육 당사자인 학생 입장에서 교육의 의미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한국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찾았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본선 1, 2차 토론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상위 3팀이 '청소년이 바라는 한국교육'이라는 주제로 결선토론을 가졌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세송이(천안북일여고, 이세정 · 김은송), 소나무 뿌리(서울 개포고, 윤솔 · 최근), 아람(충남 복자여고, 강수란 · 김보원) 등 세 팀이다. 결선에 진출한 팀은 '청소년이 꿈꾸는 새로운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실' 등 소주제의 순서에 따라 토론을 진행했다.

결선에서는 세송이 팀이 대상인 국회의장상, 소나무뿌리 팀이 행정안전부장관상, 아람 팀이 국가보훈처장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이 외에도 광주광역시장, 전라남도지사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등 모두 28명이 수상하였다.

10월 열사 추모일

이름	추모일	장소
김말룡	96.10.3	경기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홍성엽	05.10.5	경기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신항식	82.10.8	경기 광주 공원묘지
양영진	88.10.10	부산대 중앙도서관 앞 추모비
윤재영	92.10.10	충남대 사과대 앞 통일동산
우종원	85.10.11	경기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박영두	84.10.14	
홍남순	06.10.14	국립5 · 18민주묘지
장석구	75.10.15	
문승필	92.10.15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김수배	87.10.16	경남 양산 솔밭산 민족민주열사묘역
김주익	03.10.17	경남 양산 솔밭산 민족민주열사묘역
최종길	73.10.19	경기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송광영	85.10.21	경기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최 웅	93.10.26	경기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정해진	07.10.27	경기 마석 민족민주열사묘역
장광명	03.10.27	
이재호	89.10.29	
최주홍	03.10.29	
곽재규	03.10.30	경남 양산 솔밭산 민족민주열사묘역
이용석	03.10.31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

* 추모제 관련 문의 : 기념사업팀(02-3709-7612)